

부당 업무 지시·갑질 DJ센터는 '비위 센터'

광주시 감사결과, 12건 지적 회의실 무상 임대 등 수사 요청 임직원 20명 대상 징계 요구

광주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갑질행위 등을 확인하고, 이례적으로 임직원 2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특히 특정 업체에 회의실 무상 임대, 직장 내 갑질 등 김대중컨벤션센터 전 사장의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수사까지 요청했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종합 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감사위는 감사를 거쳐 시정(2)·주의(6)·개선(2) 등 행정 조치 9건, 문책(2)·경고(5)·주의(13) 등 신분상 조치 20건(명)을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특히 지난 4월 직위 해제한 김모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대해서는 사업과 경영,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모 업체에 회의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최대 1억 66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갑질 행위까지 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또 시 인권윤부즈맨의 결정 등을 토대

로 김 전 사장이 육성 등 직원 내 괴롭힘을 한 행위도 인정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전 사장이 센터 홍보 물품으로 지인인 교수의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지인 4명과 3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장은 검토하도록 소개한 것을 뿐 최종 선택은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센터 운영과 관련해 K-스튜디오 임대방식·임대료 산정 부적정(문책 1명) 및 임대 신고 등 소홀(경고 1, 주의 1명), 국제회의 복합지구 발전위원회 운영 등 부적정(문책 1, 경고 2명, 회수 290여만원), 특별채용 규정 미정비, 2022 비어 페스타 광주 운영협약 체결 부적정(주의 2명), 수의계약 분할 부적정, 학술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경고 1명), 가족수당 및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 부적정(주의 8명, 회수 543만원), 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 필요,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경고 1, 주의 2명) 등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김 전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 적자에 허덕이는 컨벤션센터의 경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지난 22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월요대화에 참석해 동물복지 관점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반려동물 행복도시 광주' 조성

강기정 시장 '월요대화' 동물 복지·입양문화 정착 방안 등 논의

광주시가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반려동물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8번째 월요대화'에 참석해 동물보호활동가, 기관 관계자 등 동물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조운주 VIP동물의료센터 부설연구소장은 이날 국내외 복지시설 운영 사례와 길고양이 등 구조보호동물 관리방안, 입양문화 정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구조·보호동물 관리방식의 선진화를 통해 반려

동물 복지와 입양문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혐오시설 논란이 있는 동물복지 센터에 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요 민원 대상인 소음·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임용관(세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대표는 "앞으로 동물보호 시설의 시 직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하면 협

오시설이 아닌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새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반려동물보건의학)는 "동물보호소에 미용 등 전문인력을 좀 더 배치해 행동교정과 미용에 신경을 쓴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유기동물이 입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쏟아졌다.

강 시장은 "가족의 범위를 같이 사는 '사람'에 돌 것인가, 같이 사는 반려동물까지 볼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이제 가족의 범위는 반려동물까지 확대돼야 할 것 같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월요대화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11조19억원 추경 편성

6638억 증액 전략산업·민생안정 중점... 도의회, 다음달 심의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제일 행복시책 추진을 위해 분예산(10조3381억원)보다 6638억원(6.4%) 늘어난 11조1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23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제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방점을 뒀다.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제외 차입금도 감소 전망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원을 적립한다.

분야별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648억원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원 ▲청년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 564억원 ▲국내외 관광개 유지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604억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17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산업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20억원),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양성(10억원), 농수축산 분야에서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45억원),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65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30억원), 대학생 전원 아침밥 사업(2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 5개 사업(72억원) 등도 반영됐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제수입과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필요한 사업비,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산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치매 고위험군 산림치유 효과 검증 착수

전남산림자원연구원·국립나주병원·나주보건소, 심리지표 등 연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23일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기관인 국립나주병원, 나주보건소와 공동으로 이뤄진다. 나주에 거주하는 60~80세 노인 26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8회에 걸쳐 산림치유프로그램 참가 전과 후의 생리·심리적 지표에 대한 수치 증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생리적 지표로 노파, 맥파 및 타액 코티졸(cortisol) 농도를 측정하고, 심리적 지표로 불안, 우울, 기억감퇴, 생활능력,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운영 중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나주병원과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장인 대상 '채우림' 프로그램에 대한 치유효과 검증에 대해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장인 38명을 대상으로 총 4회 프로그램 운영했다. 그 결과 불안 등에 대한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감소로 신체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결과는 지난 3월 대한우울증학회학회 의과학저널인 '무드 앤 이모션'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

'마늘농가 돕기' 온·오프라인 특별 판매

남도장터 쇼핑몰 20% 세일·전국 하나로마트도 할인행사

전남도와 (재)남도장터는 마늘 소비 부진과 전년도 재고량 누적 등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가격이 하락한 마늘 농가 돕기를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행사를 벌인다.

온라인 특별행사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www.jnmall.kr)에서 진행되며, 마늘 관련 전 상품에 대해 최대 2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11번가 등 제휴몰에서도 동시 진행된다. 또 오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약 10만명이 거주하

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아파트단지에서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22개 업체와 함께 하는 전남산 농수산물과 더불어 마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와 농협전남본부는 23일 농협나로유동 남약점에서 전남도와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3년산 햇마늘 판촉행사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 7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마늘 전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가 동시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일보